

시마자키 도손의 천재적 에고이즘 연구*

—루소와의 접점을 중심으로—

최 순 욱**

totoro1026@stu.ac.kr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루소의 에고이즘과의 접점 |
| 2. 『새순』에 나타난 에고이즘 | 4. 맺음말 |

Key word : 새순(a sprout), 에고이즘(egoism), 자유(liberty), 양심(conscience), 고백(confession)

1. 머리말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1872-1943; 이하 도손)은 『와카나슈(若菜集)』에서 『라쿠바이슈(落梅集)』에 이르기까지 네 권의 시집을 발간한 이후,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신을 꾀하여 1906년 『파계(破戒)』를 발표함으로써 소설가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작가 도손이 성공적인 작가 출발 뒤에 숨어 있는 에고이즘이 그를 천재적 작가로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서 논지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계』는 피차별 부락 출신의 청년 교사 우시마쓰(丑松)가 부친의 “신분을 감추라”는 명령을 어기고 동료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나간 소설이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세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받았다. 하나는 도손이 당시 메이지 초기

*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일본문화 전공.

1872년 신분차별법이 폐지되었지만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부조리 속에서 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는 부락민들에 대한 사회문제의식 표출이라는 사회소설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민을 계속해오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신천지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주인공 우시마쓰의 고뇌에 도손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이입한 것으로 자기 고백 소설로 보는 평가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두 평가와는 다른 또 다른 측면에서 도손의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 『파계』의 자비출판 뒤에 숨어 있는 도손의 가족에 대한 비정함을 밝혀내고 그 비정함은 어느 시점의 독자와 어느 작가에서 모방된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작품론을 논하기 보다는 도손의 작가로서의 천재성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에고이즘의 행동을 문제삼고자 한다.

2. 소설 『새순(芽生)』에 나타난 에고이즘

도손은 자비출판으로 『파계』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가족에게 극심한 내핍생활을 강요했는데 본고의 필자는 도손의 당시의 생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이 장에서는 도손이 작가로서 인정받을 즈음에서의 도손의 삶의 방향과 그 속에 나타난 성공을 위한 천재적 에고이즘을 찾아보기로 한다.

『파계』의 출판제작 기간 1년여 동안에 도손은 셋째 딸, 둘째 딸, 첫째 딸 순으로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병으로 잃게 되고, 아내는 야맹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시대적으로 위생과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여 겪게 된 우연한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후에 발표된 소설 『새순』(1909년)에 묘사된 셋째 딸의 죽음 후의 한 장면이다.

정신이 어찌된 건지, 나는 반 농담으로 집사람에게

“오시계가 죽어 준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스스로를 속이는 듯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나 자신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에만 속을 꿰고 있었다.

“애가 좀 어떻게 되면 어때. 상관없어”

아주 많이 바쁠 때는 자신을 달래는 마음도 들었다.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나는

갈 데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どうかすると私は串戯半分に家のものに向って、『お繁が死んで呉れて、大いに有り難かった』

欺様なことを言うこともあった。私は唯自分の仕事を完成することにのみ心を砕いて居た。

『子供などは奈何でも可い。』多忙しい時には、欺様な氣も起った。何を犠牲しても、私は行けるところまで行って見ようと考へたのである。1)

이 내용은 물론 소설 속의 기술이고 표현이다. 소설인 이상 그 속에는 과장도 있고 은폐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픽션과 논픽션은 구별해야한다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소설 『새순』은 1906년 발표된 『파계』 제작시기에 해당하는 도손의 자전적 소설이며, 그 안에는 도손의 다른 자전적 소설도 포함하여 등장인물과 기술이 실재인물들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실들을 맞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는 그의 소설 『구니코(邦子)』(1927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그 사건(세 아이의 죽음)을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파계』라는 작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私はそれ(三人の子の死)を見て、甚く腹を立てた。『破戒』がそれに備する作物かと云ひたくなった。』2)

시가 나오야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도손의 세 자녀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표현이 얼토당토않은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손이 소설가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장편소설 『집(家)』출판으로 세간의 호평을 받고 당당히 소설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시점과 세 자녀의 죽음의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추론해 볼 만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단편소설 『새순』³⁾은 1909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소설의 집필 시기는

1) 島崎藤村(1966) 『藤村全集4卷』 筑摩書房 p.410.

2) 志賀直哉(1927) 『志賀直哉全集4卷』 岩波書店 p.462

1910년~1911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집(家)』상·하권 출판 직전에 해당하며, 작품의 내용도 『집』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작품으로 작자의 자전적 소설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집』(하권)의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시기는 1904년~1906년 사이인데, 당시의 도손의 연보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발생한 도손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집』에 묘사되어 있는 그 당시의 작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먼저 이 시기의 연보를 주목해보기로 한다.

1899	4	() ()
1901	5	()
1902	4	()
1904	3	『 』
1904	5	()
1905	4	. ()
1905	5	()
1905	11	() / 『 』
1906	3	『 』 .
1906	4	()
1906	6	()
1906	10	()
1907	9	()
1908	4-8	『 』
		()
1909		『 () 』 , 12
1910	1~5	『 』
1910	6	()
1910	8	() /

3) 현재절판이지만, 문고판으로 나와 있으므로, 도서관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와 전후의 신초문고()의 두 권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4) () 『 』 8

1911 1~4	『 』 , 『 』 『 () 』
1911 3	()
1911 11	『 』 .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손은 자녀 7명 중 3명 모두 아주 어릴 때에 잃었다. 또한 장편 소설 『집』의 집필에서 출판 기간 동안에 자녀를 포함하여 등장인물들의 모델이 되어 있던 친척 6명이 사망한 것이다.

도손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겪은 큰 사건은 (1) 『파계』의 집필과 간행, (2)고 모로(小譜)에서 도쿄로의 이사 (3)세 자녀의 사망(삼녀, 차녀, 장녀의 순으로 사망)이다.

이 가운데, 도쿄로 이사한 직후의 생활과 삼녀와 차녀의 죽음에 관해서는 『집』에는 거의 쓰여 있지 않고, 상권과 하권 발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아주 희미하게 회상되는 것으로만 그쳤으며, 장편 소설에서 제외된 에피소드가 이 소설 『새순』의 중심 줄거리가 되어 있다.

『새순』의 내용은 실로 마음 아픈 이야기이다. 어쨌든 가족의 죽음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은 도손 작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슬픔의 도가 지나친 작품이다. 또한 『봄』, 『집』, 『신생(新生)』 등의 장편소설과는 달리 ‘나(私)’로 시작되는 1인칭형식으로 쓰인 점이 특징이다. 『집』과 동일한 에피소드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주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다.

주관적 관점이 너무 지나쳐서 ‘나(私)’ 라는 자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도 억누르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고 마는 이야기라서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도손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negative)인 감정을 소설이라는 형태로 토해냄으로써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타입의 작가이므로, 이 소설이 발표되기 1년 전의 소설 『봄』에서 그 다음해의 작품 『집』에 이르는 징검다리로서 이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에 인용된 단편소설 『새순』의 한 장면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도손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었고 후회에 가득 찬 심경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산에서 가져온 내 출판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었을 즈음, 나의 가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참담한 나날들을 보냈다. 어느 날 아 나는 신문을 들고 교외 처로 산보하러 나갔다. 마 일요일 부록이 들어 있는 날이라서 이리저리 으면서 어 갔는데, 친구가 기고한 럼이 실려 있었다. …중략… 『스토이론』에서 발 한 러 시아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다. 한 그루의 나무에 은 새순을 따면 나무가 더욱 잘 자라겠 지 생각하여 새순을 따고 또 따는 동안에 나무가 점점 죽어간다는 이야기에 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급속도로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는 교외의 경은 눈앞에 쳐 다.

나는 무얼 위해서 처자를 데리고 이 개발지에 이사 온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 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에 대한 무함을 느 다. 멀리 바라보면서 나는 이 생각하게 되었다. “새순은 죽었다. 나무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새순』

山から持ってきた私の仕事が な を世間へ える、私の家では も たる日をつた。ある朝、私は新聞を にして、界へ にかけた。 日 の く日で、ららそれを みながら いて行くと、に の したものがあつた。… 『ト スト 論』の からの 人の い が いてあつた。

それは 生を んら、 が 成 する ろうと って、 生を み み するう に、 が れて たという で、私はひどく に れた。ドド 新らしい家屋の っていく の光 は に^{ひら}けて居た。

私は何のた に 子を れて、この新 へ 移ってきたか、と った。く く私は、 の すなく、事 の し を感 た。 りながら、「 生は れた。 も一 に にかかつて た…」こう私は うように成つた。『 生』⁵⁾

“내 출판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었을 즈음”이라는 표현을 쓴 당시의 상황은 『파계』의 출간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도손의 현실은 변함없이 궁핍하였고 장편소설을 끝마치면서 쌓인 피로와 세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도손은 심히 상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1977)
(1966)

야마무로 시즈카(山室 静)의 분석에 의하면⁶⁾ 이 시점에서도 도손은 서둘러서 그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투르게네프와 같은 러시아 작가의 문학을 읽기 시작하여 차기 작품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점은 1906년 10월인데, 세 자녀를 잃고 니시오쿠보(西大久保)에서 아사쿠사 신가타마치로 이사한 시점이며,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손의 소년시절 이후의 추억이 서린 스미다(隅田)강에서 가까운 장소이다. 도손은 비좁은 이 집에서 35세부터 42세까지 집필에 전념한 것이다.

도손이 신가타마치로 이사 온 후의 생활면을 살펴보면, 이사할 곳도 도손의 작품구상과 집필에 적합한 곳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니시오쿠보는 현재의 신주쿠 부근인데 이곳은 고지대로 야마노테(山の手)선에 속한 곳이고, 신가타마치는 게이샤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타마치(下町), 즉 저갓거리로 부인 후유코 입장에서는 불편한 곳이었다. 그러나 도손은 가족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스미다강에서 가깝고 “저갓거리를 관찰하는 데 편리한 때문”⁷⁾이었고, 주변에 요정이 많아서 “만취되어 게이샤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인이 화를 내면 며칠이고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⁸⁾” 자기중심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손이 신가타마치로 이사 온 후 집필 작업에 몰두하여 지금까지 어느 주거 조건에서 보다 가장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위가 시끄럽다고 지바현(千葉県)의 조용한 여관에서 작업을 했다. 1910년 여름, 부인 후유코가 류우코(柳子)를 출산할 때도 도손은 지바에서 집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8월6일 난산으로 자궁내 과다출혈로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 사망했다.⁹⁾ 그 후 도손은 자신의 집필을 위해서 세 자녀, 갓난아기 류우코는 이바라키(茨城)시의 유모에게 맡기고 세 살배기 오스케(翁助)는 기소 후쿠시마 친척집 다카세 집안에 양자로 맡겼다. 게이지(鷄二)는 친구 감바라 아리아케(蒲原有明)에게 양자로 맡기려고 보냈지만 적응을 못해서 데려온 적이 있다. 결국 신가타마치 집에서는 도손과 두 자녀, 6세의 구스오와 4세의 게이지와 지내게 된 것이다.¹⁰⁾

6) (1977)

p.78

7) (1966)

p.69

8) 상계서 p.71

9) 상계서 p.72

도손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가로서의 삶에 지나치게 치우친 비난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도손의 예술과 인생에 대한 관점은 삶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예술이며, 본인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인생과 예술의 ‘전문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사랑하다가 죽는 삶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얻는 것을 문학으로 표현하고 문학을 읽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위하는 삶이라고 주장한다.”¹¹⁾

3. 루소의 에고이즘과의 접점

본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도손과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1778년)¹²⁾의 에고이즘적 측면의 공통점이 있었는지, 도손은 루소의 어떤 면을 인생경영모델로 삼아서 작가로서의 성공적 좌우명으로 삼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도손의 뇌리에는 도손의 인생경영과 작가로서의 생각을 지배하던 서구문학의 작가 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서는 고이케 다케오(小池健男)¹³⁾가 루소와 도손의 에고이즘의 유사성과 천재적 작가로의 성공을 연구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고이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도손 전집에 나오는 루소에 대한 수상록과 작품들을 관련지어 풀어나가고자 한다.

도손은 시인으로서도, 소설가로서도 성공은 했지만, 의외로 상상력이 부족한 작가이었다는 평을 많이 듣는 작가이다. 그런 반면, 착실한 관찰을 통해서 소재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연주의 소설 『파계』 집필에 들어가기 전 수년 동안 신슈(信州)의 고모로기주쿠(小諸義塾) 재직 중에 자연과 인생 관찰기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지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

10) (1977) p.84

11) 상계서 『 』 p.168

12)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년~1778년)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13) (2006) - p.114

(1912년)를 발표했다. 정형시의 서정시로 출발하여 스스로 시는 자신의 괴로운 고통의 고백으로 평가했던 시인이지만 시의 소재와 시의 작법 등에 일찌감치 한계성을 느끼고 소설가로 변신한 작가이다. 게다가 상상력이 타고난 작가도 아니다. 오로지 착실한 관찰력 하나만은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도손은 루소의 자전적 문학, 고백문학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작가로서 자신의 문학적 방향을 고백문학 쪽으로 스스로 정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도손은 일본 최초의 정형시 서정시집 『와카나슈(若菜集)』 발표로 인하여 일약 시인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 『파계』 발간으로 인해서 소설가로서의 지위도 확보했다. 게다가 도손은 청춘시대의 방랑생활, 친구 관계, 잡지 『문학계』의 동인지 활동 등을 소재로 한 소설 『봄』을 아사히신문에 연재했는데, 도손의 자서전 경향이 강하게 되는 것은 이 작품부터이다. 물론 이 시기에 도손은 『봄』 이외에도 많은 단편소설을 썼다. 그 중에는 『수채화가(水彩画家)』(1904년)와 같은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한 작품, 『배(船)』와 같은 파사로운 삽화와 같은 작품을 쓰는 등 여러 방면으로의 발전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작품도 썼다.

1910년 1월 1일부터 도손은 장편 『집(家)』을 요미우리신문에 연재하였고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작자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등장인물 관계를 보면 친척과 가족으로 좁혀져 있다. 현대의 가족관계에 비하면 메이지 시대의 가족제도는 천양지차를 느낄 정도로 가족관계는 끈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족제도 아래서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을 묘사하여 날카로운 비평가들로부터도 소설 『집』은 호평을 받았다.

메이지 시대에 이미 에밀 졸라(Émile François Zola:1840-1902)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자연주의문학운동이 일본으로 유입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사회가 아닌 자기 자신과 주변의 일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만 중시되어 사회 해부학적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사조가 자기 자신을 파헤치는 개인 고백적 사소설로 머물러 버렸다. 때문에 메이지시대에는 노동문제와 사회 부조리를 해부하는 프랑스 문학의 자연주의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으며 노동문제를

테마로 다루고 있던 에밀 졸라의 소설은 무시당하는 편중된 결과를 낳았다.

도손뿐 아니라 근대화에 뒤쳐진 일본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금과옥조로 여긴 나카에 초민(中江兆民)¹⁵⁾과 같은 사상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작가들의 눈에는 넓은 사회문제보다는 주변의 눈앞의 문제 쪽이 훨씬 더 중대한 것이고 다루기 쉽기도 하여, 다룰 필연성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손만 해도, 문단의 지위를 확보하고 나서는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도손을 의존하게 되어 이미 기울어진 도손의 집안 전체를 도손 홀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모두 떠안게 된 심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도손도 루소에게 공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공감은 루소의 전 작품에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고백』의 루소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불평등기원론』이나 『사회계약론』의 루소가 기도 하지만, 도손에게는 그러한 사회사상적 방면에서의 루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고이케 다케오(小池健男)에 의하면 도손이 22세 여름, 루소의 『고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하고 영어번역본을 빌려서 여름 내내 읽었다고 한다.¹⁶⁾ 이때 읽은 루소의 사상 중 자유사상은 도손의 에고이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 루소의 사상 중 “자유는 어떤 형태이든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자유란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며, 인간은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¹⁷⁾

도손은 자신의 집필의 성공을 위해서만 천재적인 에고이즘을 발휘하여 모든 행동을 자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의지 결정은 절대자유임을 인식하여 타인이나 가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기적 행동양식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손은 자신의 젊은 날에 읽은 루소의 『고백』을 읽고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한 감회를 “인간이 지나치게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생각하고, 자유로이 글을 쓰며, 자유로이 행동하는

15) (나카에 초민:1847 ~1901)일본의 사상가, 저널리스트, 정치가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를 일본에 소개하여 자유민권운동의 이론적지도자. 동양의 루소로 평가됨. 은 호, 수많은 백성()의 의미. 본명은 도쿠스케(/)

16) (2006) - p.8

17) J- J. Rousseau(1964) Vol.4 p.605 (Paris: Librairie C. Klincksiech 1964)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¹⁸⁾라고 회고의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고백』의 제 7권과 8권에 걸쳐서 루소가 파리에서 테레즈 르바쇠르(Thérèse Levasseur)와 사귀게 되고 태어난 자녀 다섯 명 모두 고아원에 맡겼다는 인상 깊은 부분을 놓쳤을 리가 없다.¹⁹⁾ 더욱이 그 동안에 루소는 『학문예술론(學問藝術論)』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구상한 현상논문 『인간불평등기원론』은 지나치게 독자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평가로 수상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정도로 독자적인 저술이었다. 도손은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독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지만, 『과계』의 주요 테마는 놀라울 정도로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의 테마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²⁰⁾

『과계』는 분명히 피차별 부락문제를 다루고 있고 주인공 세가와 우시마쓰가 경애하는 사회사상가 이노코 렌타로(猪子連太郎)에게는 루소를 방불케 하는 『참회록』이라는 제목의 저술서가 있다. 그 책의 제 1행에는 “나는 에타(穢多)이다”²¹⁾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이 고백임과 동시에 불평등사회 규탄의 서두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과계』에 나오는 렌타로의 사회사상적 내용은 그 이상 깊은 내용으로 발전되어 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우시마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해주십시오.”²²⁾라고 말하면서 학생들 앞에서도, 교사 동료들 앞에서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서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 이러한 면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는 보여주지 않는 작품으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되는 점은 적어도 도손

18) (1966) 『 『 p.274

19) 1745년 루소는 여러 귀족부인과 사귀었지만, 결국 23살 세탁부 하녀, 테레즈 르바쇠르와 오랜 동거를 했다. 그녀가 낳은 첫 아이와 1748년에 태어난 둘째를 비롯해 다섯 자녀를 차례로 고아원에 맡겼다. 1749년부터 루소는 디드로와 친교를 맺은 후, 그의 권유로 프랑스 아카데미의 학술 공모전에 <학문 및 예술론>이 1등으로 당선되어 이름을 떨쳤으며, 작사 작곡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가 공연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편찬에 참여해서 음악과 정치경제 항목에 할당된 글을 쓰고 다음해에 계몽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학문예술론》을 출판한다. 1752년에는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를 작곡하였다.<https://ko.wikipedia.org/wiki>

20) (2006) - p.114

21) (1966) p.11

22) (1966) p.274

은 『파계』를 통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부당한 어리석은 인간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했고, 문학으로서 정착시킨 점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과거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해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상가로서 논리적으로 추적하고 규탄했다. 도손은 문학자로서 어리석음의 실상을 소설의 형태로 파헤쳤던 것이다.

『집』을 집필할 때까지의 도손은 넓은 시야로 사회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집안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출가한 큰 누나 남편의 방탕과 몰락, 큰형의 사업실패와 감옥행, 둘째 형도 비슷한 어려움과 가정 경제의 무관심, 셋째형의 지병과 죽음 등은 도손으로 하여금 『집』이라는 작품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도손은 『집』을 집필하는 동안 루소의 『고백』을 읽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해주는 듯, 주물의 틀에서 모양을 만들어내듯,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손의 에고이즘은 어떤 양상에서 루소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도손은 자신의 문학의 집필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녀들도 여러 집에 양자로 보내거나 친척집에 맡기는 등 서슴지 않고 주변을 정리했다. 루소 역시 여인숙의 세탁실에서 일하는 하인 테레즈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모두 양호시설에 맡기는 등 아버지 자격상실이라는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입신출세를 위한 집필 작업위한 주변정리에 철두철미했다. 루소의 『고백』에 의하면, 루소는 저술하기 시작하자 태어난 자녀 5명을 모두 산파를 통해서 고아원사무실에 맡겼었다.²³⁾ 이러한 사례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루소는 후에 자기변명과 깊은 회한의 심경으로 『고백』에 이 사실을 기록했다. 도손은 자신이 루소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젊은 날에 감명 깊게 읽었던 『고백』의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기분으로 떠올렸을까? 도손은 입신양명하라는 부친의 명령을 저버리고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였고, 후원자의 뜻도 무시하고 문학에 뜻을 두었던 시절의 이야기는 주지하는 바이다.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천부적 재능을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면에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인격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세 자녀를 병으로 잃고, 아내는 야맹증이 되기까지 궁핍한 생활을 강요한 도손은 다섯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루소, 자녀들의 생모인 테레즈를 가정부라든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루소에 대해 인생의 선배를 향해 품는 경외심마저 갖게 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도손은 그의 회고록에서 장편소설 『집』상·하권을 집필하던 신가타마치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루소에 대한 존경심을 서술했다.

내가 루소에 대해서 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루소는 스스로 문화가, 학가, 교가 등등의 전문가라고 자 하지 않았고 다만 ‘사람’으로서의 길을 자처한 점에 있다. 그의 평생에 처사에 대한 변민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루소는 적어도 한 인간의 명을 일으킨다. 그 결과 새로운 교가를 생시키고 문화를 생시 다. 루소는 ‘자유로이 생각하는 사람’의 아버지였으며, …중략… ‘자유로이 생각하고’ ‘자유로이 글을 쓰며’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미로운가. 이러한 경지에서 사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24)

루소는 교육론 『에밀』의 제4권의 종교교육 가운데서 양심의 존귀함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양심이여! 양심이여! 신성한 본능이여! 불의 하늘의 음성이여! 심이야말로 무지하고 편견 없이 어리면서도 지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의 확실한 안내자이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오점하난 없는 재판관이다. 양심이야말로 인간을 신과도 구별시키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 『사보아 보좌신부의 신 고백』25)

이 고백은 1728년에 루소가 방랑생활을 떠나기로 결심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의 리옹(Lyon)으로 걸어가서 리옹에서 가임(J. C. Gaime)이라는 신부를 만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회상하여 쓴 고백서 중의 일부이다. 이 신부와의 해후를 계기로 개신교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26)

24) (1966) 『』 p.274

25) Comite National pour la commemoration de J- J. Rousseau, Jean Jaques Rousseau et son oeuvre: Problemes et Recherches(Paris: Librairie C. Klincksiech 1964) 『Vicaire Savoyard』 p.28

26) 남은경(2011) 『루소의 종교교육사상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와 교육 16호 pp.110-111

다섯 자녀를 사회시설에 맡겨버린 자가 교육론을 집필하고 양심을 운운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독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루소 역시 평론가들로부터 모순덩어리라고 예리한 지적을 받았다. 루소는 애써 자기합리화를 했는데,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리석은 테레즈나 무능한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자기변명을 해보았지만 호소력은 없었다. 오히려 후회 막급한 서술표현이 독자의 가슴을 울렸다.

한편 도손은 루소의 이 표현 “양심이여! 양심이여!”라는 한마디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몇 줄의 표현을 선택하여 『이이쿠라 소식(飯倉だより)』의 권두언²⁷⁾으로 프랑스어 원문 그대로 실어 놓았던 것이다. 루소의 사상과 이 수필은 내용상 관련이 없었지만 도손은 권두언으로 루소의 “양심이여! 양심이여!”를 인용하여 프랑스어로 표기해 놓았던 것이다. 루소가 말하는 양심은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자유의지이며 에고이즘을 의미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연인을 나타내며, 도손은 당시 일본사회의 가부장적 집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희생으로 해석하고 희생이 강요되는 일본사회구조에 대한 갈등을 루소의 표현을 빌어서 에고이즘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분석을 해본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 자신과 의논하는 것으로 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나 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다. 모든 결의론(論²⁸⁾ 판정자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판정자는 양심이다. 양심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 양심은 인간의 참된 안내자다. 양심과 영혼의 관계는 본능과 체의 관계와 동등하다. 양심을 따르고 있으므로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보아 보좌신부의 신 고백」

Je n'ai qu'à me consulter sur ce que je veux faire : tout ce que je sens être bien

27) (1966) p.4

28) 결의론(: casuistry)은 일반적인 종교 내지는 도덕상의 규범을 특수 개별사례에 적용할 때에, 유추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한 실천적 판정법이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때의 지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중세의 스킨라철학에서 중시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16세기~17세기에 걸쳐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되었다.

est bien, tout ce que je sens être mal est mal : le meilleur de tous les casuistes est la conscience ;

…La conscience ne trompe jamais ; elle est le vrai guide de l'homme : elle est à l'âme ce que l'instinct est au corps; qui la suit obéit à la nature, et ne craint point de s'égarer.

…Conscience ! Conscience ! Instinct divin, immortelle et céleste voix. ; guide assuré d'un être ignorant et borné, mais intelligent et libre; juge infaillible du bien et du mal, qui rend l'homme semblable à Dieu.²⁹⁾(Jean-Jacques Rousseau/1712-1778/L'Emile/1762)

「Profession de foi du Vicaire Savoyard」

『이이쿠라 소식』은 수필식의 문화론, 문명론, 일상생활의 스케치, 친구와의 편지 서문 등의 모음집이다. 권두언으로 인용한 루소의 말은 이 작품 속 어느 것 하기도 연관 지을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도손이 일부러 “양심이여! 양심이여!”의 한 부분을 선택한 진의는 추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도손이 이 시기에는 이미 어떤 형태로라도 『에밀』을 읽었으리라는 추량은 가능하다. 그리고 도손이 루소를 따라서 자유의지의 양심이 얼마나 인간을 해방하는 존귀한 가치인가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권두언으로 선택했다고 보는 게 순수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자유의지대로 사는 에고이즘이 신이 부여한 양심(良心)에 상반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구절을, 그것도 원문 그대로 실은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는 바이다.

4. 맺음말

도손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환경적 절망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춧돌이 된 문학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작가이다. 본고는 그러한 도손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조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도손의 글 속에서 찾아낸 이기적인 인간상을 분석하여 도손이 한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을

29) (Jean-Jacques Rousseau/1712-1778/L'Emile/1762) 「Profession de foi du Vicaire Savoyard」
<http://atheisme.free.fr/Biographies/Rousseau.htm> (검색일: 2015년 1월 15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삶에 실천해서 일본 근대문학 작가로서 성공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그의 자유로운 행동양식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도손은 자신의 영어실력을 통해서 영문서적을 읽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구문학과 서구문화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작가이다. 특히 도손은 영문학을 통해서 얻은 문학적 주제와 소재를 얻어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작가적 재능을 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나칠 정도로 집요한 노력가이다. 도손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인격은 회고록과 단편 『새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 자녀가 줄줄이 병으로 죽고, 아내는 야맹증이 되기까지 궁핍한 생활을 강요한 도손을 발견하고 이러한 도손의 자기중심적 행동양식의 계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루소와의 관계와 도손의 작품과 작품의 성공의 그림자를 분석해 본 결과, 도손이 22세에 읽고 감명을 받은 루소의 『고백』 속에 나타 있는 루소의 자유사상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도손은 『고백』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루소의 사상을 수용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 등을 통해서 글로 밝혔으므로 본고는 도손의 저작물을 분석하여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남은경(2011) 『루소의 종교교 사상과 기독교교』 『기독교와 교』 16호 pp.110-111
 男(2006) 『藤村と』 文社 p.8 p.21 p.114
 (1927) 『』 集4』 波書店 p.462
 (1966) 『日本文学 集8 藤村集』 書房新社 p.134
 藤村(1966) 『藤村 集二』 筑 書房 p.11 p.274
 『』 の 『』 に見 したる自』
 『藤村 集4』 筑 書房 p.410
 『藤村 集一』 筑 書房 p.4
 (1966) 『』 藤村の』 有信 , p69 p.71 p.72
 山室 (1977), 『』 藤村 生 と言』 藤 書店 p.76-77 p.78 p.84 p.168 pp.199-200

J- J. Rousseau(1964) Vol.4 p.605 (Paris: Librairie C. Klincksiech 1964)

J- J. Rousseau Comite National pour la commemoration de J-J. Rousseau, Jean Jaques
 Rousseau et son œuvre: Problemes et Recherches

(Paris: Librairie C. Klincksiech, 1964) 『Vicaire Savoyard』p.28

<https://ko.wikipedia.org/wiki> (색일: 2015년 1월 13일)

<http://atheisme.free.fr/Biographies/Rousseau.htm> (색일: 2015월 1월 15일)

접 수 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완료: 2016년 07월 27일

게재결정: 2016년 08월 17일

<Abstract>

A Study on the Genius Egoism in Shimazaki Toson

—Focusing on the Point of Contact with Rousseau—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goism expressed in the short novel of "the Sprouting" and Toson's memoirs. Toson compelled the family and his children into sacrifices for literary writing and business. He sent his children to relatives of the house. Toson was impressed on Rousseau as a thinkers when read young. Just as like Rousseau met maid of needlework of at the laundry room of the boarding house, and five children who were born between two, entrusted to the orphanage has caused a stir. Both of them did the same thing which was a thoroughly selfish with the aim of their success in life between Toson and Rousseau.

When Toson read Rousseau's "confession", he caught and understood the ideas of liberty thought as a source of egoism in Toson. Any way, the liberty which not tied to regulations, exists in the human mind. Free people is who in the existence of conduct to remain his heart's content.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Sprouting" and Toson's memoirs, we have found that the self-centered egoism of Toson and the style of egoistic behavior in Toson being from the reading in his 22-year-old, and that he was impressed on "confession" written by Rousseau. depicted as liberty thought. Toson said in his memoirs, that he found out a new ego through "confession" by Rousseau for the sake of self-realization. It is said that Toson confessed the fact that he received the idea of Rousseau and moved it to the action into life.